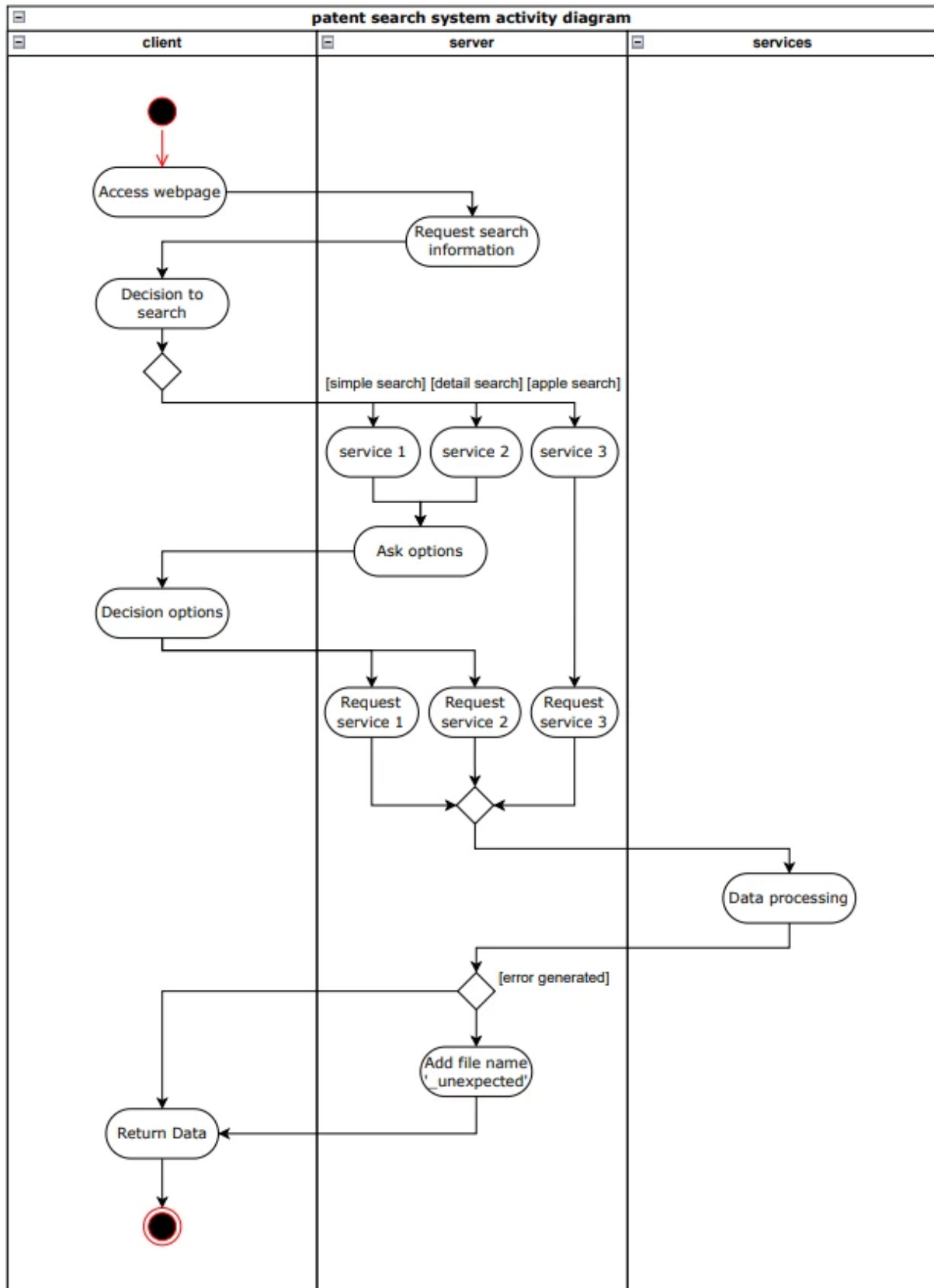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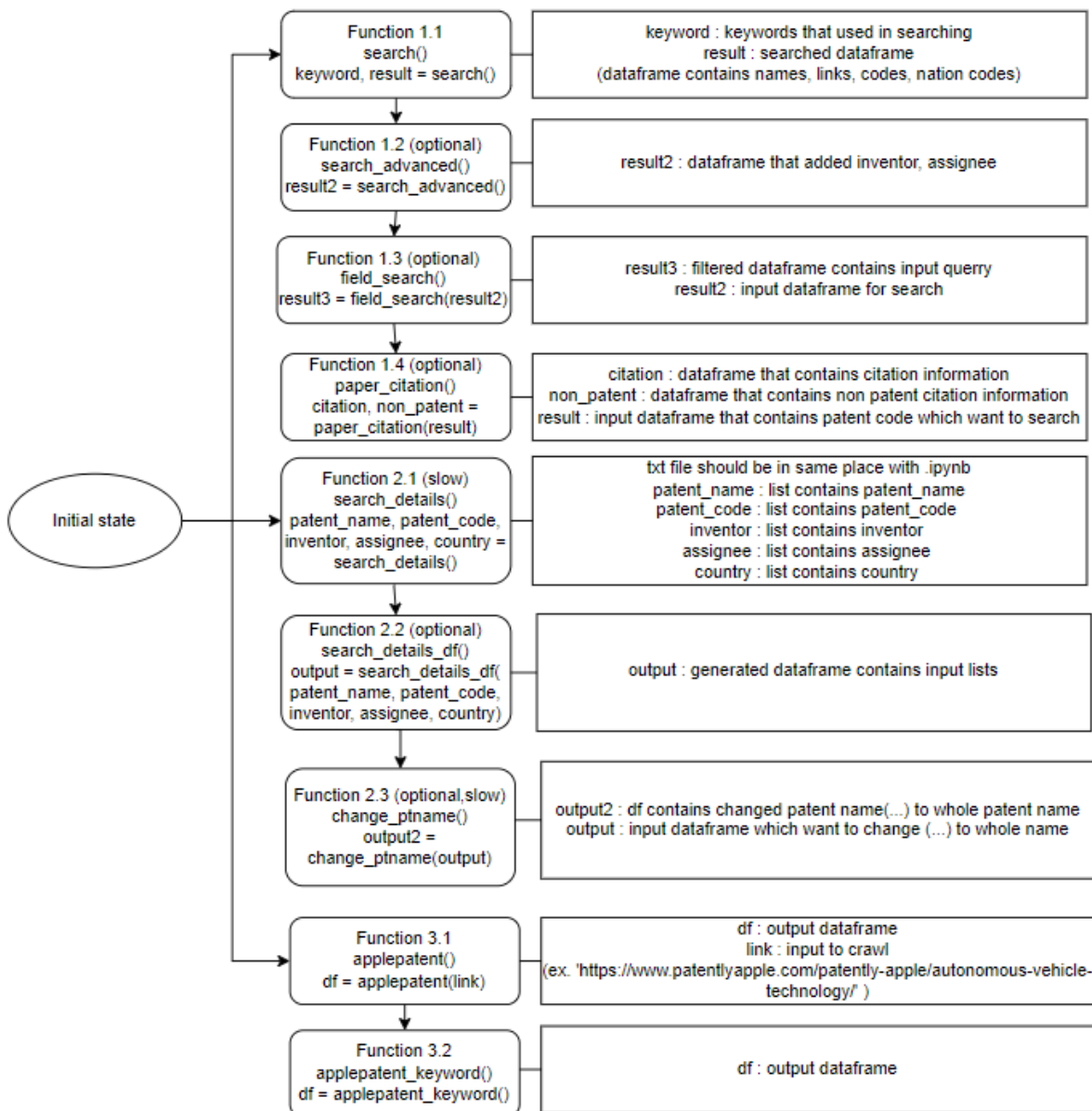


1. 프로젝트 진행 및 결과





웹크롤링 프로젝트 진행

특허 출원을 위한 다른 기업들의 특허자료 크롤링

14000여개의 특허 정보 추출

만든 함수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만듦

2. 전반적 피드백

9 to 6 할 때도 있었고, 8 to 5 할 때도 있었음. 업무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음

웹크롤링은 기계공학보다는 전산전자, 컴퓨터공학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지만 우리 학부에서는 제어공학도 함께 배우고, 영상처리하는 기업인만큼 딥러닝, 머신러닝 쪽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분위기를 보기에 좋은 듯.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많이 기를 수 있었고, 회사의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겪어보니 좋은 경험이었음

3. 경험을 통해 얻은 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음.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음. 개인적으로는 대학원과 취업을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전문연구요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진로상담을 정말 잘 해주셨음. 아무래도 대학원과 취업을 모두 경험해보신 분들이기에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들을 수 있었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음

4. 아쉬웠던 경험

8주 정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시간이 조금 더 충분했다면 웹페이지 디자인에 조금 더 시간을 써보고 싶었다. 그 외에는 스트라드 비전에 한동대 분들이 정말 많기에 다른 분들도 한동대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느낌을 받았다. 8주동안 정말 즐겁게 일을 했어서 딱히 아쉬운 점은 없던 것 같다.

5. 추천 여부

추천한다. 코로나 재택근무 때문인지는 몰라도 택시비를 지원해줘서 출퇴근할 때 정말 어려움없이 다녔던 것 같다. 그렇기에 퇴근 이후에 개인시간에 조금 더 여유로웠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휴게실에 항상 간식이 있어서 피곤함을 느끼면 단 것을 먹었다. 다른 기업은 가보지 않았지만 일을 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6. 기타 건의사항

보통 인턴쉽 지원을 시험기간부터 시작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핀 스퀘어에서는 기계제어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설명회를 했었는데, 때문에 인턴 지원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기 초반에 설명회가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해당 기업에 더 관심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